



열정을 담아 하고 싶은 일, 바로 안전입니다.

H 현대제철 이윤목 환경안전팀 차장

올해로 마흔네 살의 이윤목 차장은 현대제철주식회사에서 환경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충북 제천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보내고 충북대학교 안전공학도를 졸업, 1991년 인천의 현대그룹사 소속 인천제철(현 현대제철)에 안전관리자로 입사하였다. 입사 초기 철강업 특성상 중량을 취급이 빈번하고 교대근무라는 특성으로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작업환경, 경제개발을 앞세운 생산과 품질 위주의 경영방침 등은 환경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민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특히나 사망사고의 경우 오열하는 가족을 대할 때면 밀려오는 슬픔과 책임감에 일을 그만둘까도 여러 번 고민했다고 한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더욱 일에 몰두하게 되었고 어느새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흘러간 세월을 뒤 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고민과 어려움은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고, 특히나 현저히 줄어든 재해율은 큰 보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벤치마킹을 위해 같은 동종 업종의 모 기업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법과 노하우를 전해줄 수는 있지만 현대제철에서도 똑같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업문화가 다를뿐더러 현대제철의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이 그것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간 자존심이 상하긴 했지만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현장을 견학하고 온 터라 기업문화의 차이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이미 그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아무리 비싸고 값이 나가는 옷이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니듯 아무리 좋은 안전관리기법이나 시스템이라고 해도 그 기업의 문화와 맞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결국 벤치마킹의 초점을 다른 사업장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방법은 빌리되 내용은 현대제철의 기업문화와 위험요소, 근로자들에게 맞춰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하게 되었고 오랜 노력 끝에 지금은 현대제철만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정착되어가고 있다.

업종의 특성상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넓은 작업장, 다수의 위험기계기구의 사용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는 철강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고에 노출되는 빈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따라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그로서는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크다. 그는 사고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그에 맞는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여건상 사고를 일으킨 근본 원인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병이 생기면 병을 유발시킨 근본 요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병은 재발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사고도 근본적 원인에 대한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8년의 세월 동안 안전이라는 외길을 선택하고 한 분야의 장인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그는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후배 안전관리자들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행해져야 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만큼 자신의 일에 전문성을 쌓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안전관리자라고 그는 확신한다. ☺

취재/임재근 기자